



# 식품안전사고와 보험산업

정인영 연구원

역학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식품안전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품에 대한 리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기업은 제품회수 및 배상책임에 따른 재무적 손실 외에 기업평판 훼손 등과 같은 막대한 비재무적 손실이 발생함. 이에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식품안전사고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는 생산물회수비용보험, 상품오염담보보험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사고로 인한 리콜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지난 8월 벨기에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fipronil)이 포함된 계란이 발견된 이후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유럽 24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40개국에서<sup>1)</sup> 대규모 리콜사태가 발생함
- 미국의 경우 2016년 기준 식품리콜 건수는 전년 대비 22% 급증한 764건으로, 우유, 계란, 땅콩 등에 포함된 미확인알레르기 유발성분(undeclared allergens)으로 인한 리콜이 상당수를 차지함<sup>2)</sup>

## ■ 식품에 대한 리콜증가는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식품안전규제 강화 등에 기인함

- 주요국에서는 식품사고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sup>3)</sup>을 고려하여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식품안전법 제정 등을 통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추세임
  - 유럽의 경우 1990년대 발생한 광우병,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 파동 등의 식품안전사고를 계기로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법(Regulation (EC) No 178/2002)<sup>4)</sup>을 제정함

1) Reuter(2017. 9. 5), "Contaminated eggs found in 40 countries as EU ministers meet: DPA"

2) Food Safety Magazine(2017. 2. 7), "A Look Back at 2016 Food Recalls"; 공정거래위원회(2017)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품목별 리콜 비중은 일반공산품 리콜이 전체의 38.8%로 가장 높고, 식품(20.9%), 자동차(15.1%), 의약품(10.6%) 등의 순임

3)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미국 국민 중 6명 중 한 명은 매년 식품매개질환(foodborne disease)에 걸리고, 연간 약 3천 명 가량이 이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4) EU는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및 자문을 제공해 줄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 미국에서도 2011년부터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임

■ 식품사고 발생 시 해당식품을 제조한 기업에는 리콜에 따른 막대한 재무적 손실과 더불어 기업 평판 하락<sup>5)</sup> 등과 같은 비재무적 손실이 발생함

- 미국의 식료품제조협회(Grocery Manufactur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식품리콜로 인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직접적인 비용은 1,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브랜드이미지 실추와 제품판매 감소 등으로 기업의 손실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sup>6)</sup>

■ 이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식품사고로 인한 리콜에 따른 기업의 손실위험 방지를 위해 생산물회수비용보험, 상품오염담보보험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생산물회수비용보험(Product Recall Insurance)은 기업이 제조·판매한 식품으로 우연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 시, 또는 알레르기물질, 유통기한 등에 대한 표시 누락 및 오류 등으로 리콜조치가 취해질 경우 이에 따른 제품회수, 검사, 폐기 등의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임<sup>7)</sup>
- 상품오염담보보험(Contaminated Product Insurance)은 우연하고 고의성이 없는 제품 결함에 따른 제품 회수 리스크 외에도 금전갈취(product extortion)를 목적으로 한 악의적 제품훼손으로 인한 기업 평판리스크를 보장하는 상품임 **kiri**

〈표 1〉 식품안전사고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

구분	배상책임보험	생산물회수비용보험(리콜보험)	상품오염담보보험
담보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결함으로 인한 신체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위험 담보</li> <li>- 법률상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 또는 사망을 유발하는 우연하고 고의성이 없는 식품결함, 유해 물질 표시누락 등으로 인한 제품회수위험 담보</li> <li>- 소비자 통지비용, 검사비용, 폐기비용, 제품대체비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연한 식품사고로 인한 제품회수 및 악의적 제품훼손 위험 등을 담보</li> <li>- 피보험자의 리콜비용, 사전검사 및 사후 위기관리비용, 기업복구비용 등</li> </ul>

자료: Swiss Re(2016), "Food safety in a globalised world"

유럽식품안전청(EFSA) 설립하고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신속경보시스템(RASFF)의 기능을 확대함

- 5)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식품안전사고 정보가 과거에 비해 빠르게 확산되고, 해당 기업의 상품불매운동 등도 진행됨
- 6) Food Safety Magazine(2012, 10), "Recall: The Food Industry's Biggest Threat to Profitability"; 특히, 가공식품 및 인스턴트식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식품안전사고가 대형화되어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더 커질 우려를 제기함
- 7) 일본의 도쿄해상화재는 농약 등의 잔류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야채나 수산물의 대한 리콜과 계란, 우유, 땅콩 등을 원재료로 하는 식품의 원재료 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된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생산물회수비용보험(リコール保険)을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의 AIG, Allianz 등에서도 동 상품을 운영 중임